

“실용적 조형으로 불교예술의 대중화 선언”

청원 스님 장학기금 마련 전시회...인사동 라메르 갤러리서



부산 강서예술촌서 작업중인 청원 스님. 이번 전시에서 스님은 채색개금불상과 금니채색도자기 등 총 200여점을 선보인다.

불상조각의 대가 청원 스님(동국대 경검 불교미술학부 교수)이 후학양성을 위한 동국대 장학기금 모금 전시회를 개최한다.

청원 스님은 7월 24일~30일 서울 인사동 라메르 갤러리에서 채색개금불상과 금니채색도자기 등 총 200여점을 선보인다.

스님은 “한국불교 1700년의 역사적 소산은 팔만대장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불교예술과 불교조형예술에 펼쳐진 문화적 소산 역시 불교를 떠받치는 소중한 가치”라며 “이를 위해 불교예술을 이어가는 인재발굴과 후학양성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불상·도자기 등 200여점 선보여 “불교예술인 후학양성 매진”

스님이 작업중인 부산 강서구 낙동강변에 위치한 강서예술촌은 전시회 준비가 한창이었다. 청원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는 불상 제작시 사용했던 채색개금 장엄기법의 모티브를 접목한 도자기 작품들을 대거 선보인다”며 “불교 조형을 대중화시키고 실용성을 담보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한다.

보기에도 도자기의 장식이 아주 화려하다. 도자기라기보다 마치 채색 개금 불상의 화려한 장엄을 보는 듯 금니채색의 화려함이 이미 불상 장엄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보인다. 또한 종류에 있어서도 병합, 필통, 조명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교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학 양성에는 더욱 힘이 든다고 전한다.

스님은 “국내 불교 조각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머물렀다. 이런 상태로는 후학 양성이 힘들다. 불교미술의 전통적 계승만큼이나 불교예술인들의 삶의 질을 담보해 줄 대중성과 실용성을 갖춘 문화예술 상품 개발과 해외 진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전시회에 처음 선보일 금니채색도자기들은 오랜 고민과 연구의 성과”라

며 “관공서, 기업 등에서 기념품보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20호 목조각장으로 등재된 청원 스님은 불교조형예술에 대한 남다른 집념과 후학양성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청원 스님은 지난 1981년 지리산 칠불사 삼존불과 영산전 후불탱화 등을 모두 조각으로 표현한 바 있으며, 2001년부터 부산 강서구에 강서예술촌을 만들어 문화재 수리 기능 인력양성에 힘쓰고 있다. 향후 문화재 전수를 위한 전수관을 계획중이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김양희·이준형 ‘좋은 인연’ 발표

성악가이자 합창단 지휘자로 활동 중인 소프라노 김양희와 테너 이준형의 듀엣 음반 ‘좋은 인연’을 발매했다. 불음교포를 위해 30여 년 동안 정진해온 두 사람은 불교계 유일의 오페라단인 바라 오페라단의 단원으로 ‘아수다라와 아난다의 고백’ ‘오세암’ ‘아미타불’ ‘에밀레! 그 천년의 연가’의 무대에서 주역으로 활동해왔다. 이번 음반에서도 두 사람은 각자의 색깔과 역량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김양희 이준형은 불교학생회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찬불가를 통한 불음 교포



의 원력을 갖고 지금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불교사이기도 하다. 이번 음반에서는 이종만 작곡의 ‘좋은 인연’을 타이틀곡으로 택신 스님이 작사한 ‘연꽃 피어오르리’ ‘부처님 오신 날’ 등 다양한 찬불가를 만날 수 있다.

정혜숙 기자

10만 약사여래불 중생 위로하는 콜라주로

원진 스님 개인전 7월 17일~22일까지 인사아트센터서



원진 스님

“속가의 어머니가 아픈 모습을 보고 약사여래불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2년 동안 10만 부처님을 그리며 세상의 병든 이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세상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싶다는 발원을 하게 됐습니다”

약사여래불 10만불이 오색의 콜라주 작품으로 탄생했다. 원진 스님(경도 보갑사주지)의 개인전 ‘당신은 부처님이에요’가 7월 17일~22일까지 인사아트센터 3층 제1특별전시관에서 열린다.

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처음에는 속가의 어머니가 어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자비와,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 같은 마음만 가진다면 싸움할 일도 다툴 일도 없을 겁니다. 모든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의 모습은 부처님과 닮았죠. 그 자비를 부처님 표정 속에 담아냈습니다.”

그렇게 한지 위에 혼합재료를 사용해 그려낸 부처님은 10만불이 되었다. 스님의 작품은 이즈음 다시 새로운 생각으로 이어졌다. 갖가지 색과 표정의 부처님을 새로운 형태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

속가 어머니 위로하고자 10만 부처님 그리기 발원 중생이 곧 부처님임을 깨달아

고 그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아내고자 했다. 노랑 파랑 흰색 등의 바탕 위에 10만 약사여래불을 하나 하나 붙여 나가자 16점의 콜라주 작품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만법귀일”은 만다라 형식으로 퍼져 나가는 부처님을 통해 “모든 법은 나부터 시작하고 나를 통해서 나오고 들어오기도 향하게 된다. 속가의 아픈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였다. 스님은 그 시간 동안 세상 모든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었고 또 중생의 아픔을 다시한번 알게 되었으며 세



약사여래불을 다중이 혼합물감으로 표현한 원진 스님의 ‘당신은 부처님이에요’. 중생의 아픔을 위로하는 10만불을 그려 콜라주 작품으로 완성했다.

공미를 말해주고 있다. “작품 중간에 유리를 붙여서 관객들이 자신의 얼굴을 비춰볼 수 있도록 했어요. 나도 부처님이고 너도 부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모두에게 좋은 에너지가 있고 참 주인공이라는 마음을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주인공임을 깨달으면 세상이 좀더 밝아지지 않을까요?”

스님이 작품에 몰두하는 동안 스님의 속가 어머니는 이승의 옷을 벗었다. 최근 어머니의 49재를 치른 스님은 어머니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세상으로 회향했다.

이제 스님은 대중들에게 그림을 통해 더 많은 것들을 알려 주고자 한다.

“앞으로도 제 작품은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이를 통해 스스로가 치유될 수 있는 불교적 마음치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한편, 원진 스님은 동국대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아카데미 드라그랑드 쇼미에르’에서 수학했으며 현재 영남대학교 미술관 다점유조형미술 특강을 하고 있다.

정혜숙 기자



동서양 한지예술 한눈에

한미 작가 24명 한지미술전 7월 17일~22일까지

영담한지박물관 관장 영담 스님

한지는 무한한 우주로 되었고 한없이 평화로운 자연으로 탄생해 우리의 감성을 촉촉히 적신다. 한지의 다양한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전시가 있어 눈길을 끈다. ‘한미한지작가 한지미술전’이 7월 17일~22일까지 인사아트센터 3층 제3전시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미국과 한국의 작가 24명이 참여해 한지 미술의 새로운 세계를 연다. 영담한지미술관(관장 영담 스님) 특별 기획 중 하나로 열리는 ‘한미한지작가 한

지미술전’은 2012년 레지던스 작가로 한국을 방문했던 해외 작가 12명, 그리고 한국의 한지 미술작가 12명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다. 이번 전시는 동서양의 표현의 차이는 물론 한지의 다양한 오브제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전시를 주최하는 영담한지박물관 관장 영담 스님은 “작가들에게 아주 두꺼운 장치에서부터 아주 얇은 하늘종이까지 3종류의 전통한지를 주며 작품으로 표현하게 했다. 특히 미국 작가들은 처음 접해 보는

한지를 받아들이고 매우 기쁘고 신기해했으며 서양적 그림 기법으로 한지 고유의 특성을 살려 작품으로 승화했다”고 전했다.

한국 작가로는 영담 스님, 원진 스님, 임효, 이홍원, 이영, 김호연, 허만옥, 문은희, 이민자, 박학성 등이 참여한다.

한편, 사찰종이 연구와 한지미술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영담 한지박물관은 영담 스님의 작품 2000여점과 한지작가 작품 150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미셀 리의 'Well cooked men'



장건강(배변)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

www.boryung365.com





쾌변! 하루1포로 배변을 시원하게!



전 알로에로 만든 장쾌장 덕분에 정말 좋아요! 매일 아침이 상쾌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정신없이 세수하고 출근준비를 하다 보면 어느새 출근시간, 등교시간을 훌쩍 지나가 버린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도 불편한 장때문에 화장실에 들러야 안심이 되는데 화장실에서 불일 시간은 너무나 길러야 한다. 정신이 없다. 오래도록 배변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 가스가 차거나 아랫배가 항상 묵직하다. 화장실에서의 한바탕의 소동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되풀이 되다보니 배변활동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급선무다.

굵고 시원하고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령의 아삭작 장쾌장 탄생!

급변 보령에서는 배변활동에 원활(장건강)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보령 장쾌장을 출시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장쾌장의 핵심성분인 알로에 전잎은 “배변활동 원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기능이 인정되었다. 알로에 전잎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성분으로는 polysaccharides와 glycoprotein, aloin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특히 aloin은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aloin이 소장에서 유역의 배출을 촉진시켜 Na-K-ATPase의 활성을 억제하거나 점막 투과율을 상승시켜 대장활동을 활성화시킨다

박스 구입시 1박스를 더 드립니다. (300세트한정)

“장(腸)이 편안해야 온몸이 편안합니다”

묵직하고 잔변감이 남아있는 아랫배, 보령 장쾌장이 시원하게 해드립니다.

[원료명 및 함량]

알로에아보레센스(무수버버로인 30mg/g) 와 차전자피분말, 이눌린/치커리추출물, 다시마분말, 사철썩분말, 유산균혼합물, 통통마디분말, 밀크씨슬추출물, 삼주뿌리 등이 이상적으로 배합되어 장(腸)이 불편한 분들에게 만족감을 드릴 것입니다.

‘선착순 300세트 특별 할인판매 중!’

하루 1포로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분께 권해드립니다.

- ▶ 평소 장 기능이 약하신 분
- ▶ 배변활동이 원활하지 않아 가스가 잘 차는 분
- ▶ 늘 책상에 앉아 활동이 적은 직장인
- ▶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분
- ▶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긴 분
- ▶ 배변활동이 원활하지 않아 아랫배가 묵직하신 분
- ▶ 배변 후에도 잔변감이 남아 있으신 분
- ▶ 활동량이 적어 장의 연동운동이 부족하신 분

규칙적인 장운동



김금현 BORYUNG 대표이사

주문전화 **080-800-7575**